

보도시점 2026. 5. 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5. 4.(월)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으로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수준 높인다

- 공영동물원 중심 협력체계 구축으로 허가요건 이행상황 점검
- 안전관리·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6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동물원의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는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시설·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공영동물원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제 전환(’23년 12월부터 시행, 기존 등록 동물원에 대해 ’28년 12월까지 유예)을 앞두고, 공영동물원의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출범 회의에는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전국 공영동물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영동물원 간 상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인력, 안전관리, 동물복지 등 주요 분야의 이행 수준을 함께 높여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허가제가 현장에 무사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독려함과 동시에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동물원의 안전관리 및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공영동물원이 허가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영동물원 협의체 관련 회의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이현진 (044-201-7287)



□ 추진배경

-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영동물원의 허가요건 이행상황과 현장 필요사항을 함께 점검할 필요
- 최근 동물원 안전·복지 관련 현안 대응 과정에서 시설·인력·운영기준 전반의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영동물원 중심의 협력체계 마련 필요

□ 개 요

- (일시) '26.5.6.(수) 14:00~16:00
- (장소) 한국공공기관연구원(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기후부 자연보전국장, 생물다양성과장, 유역(지방)청 환경관리국장(과장)·기획평가국장, 공영동물원장, 국립생태원 등 50여명
- (회의내용) ①공영동물원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②허가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 필요사항 논의

□ 진행 순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0	10'	인사 및 참석자 소개	기후부
14:10~14:25	15'	공영동물원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기후부
14:25~14:40	15'	허가준비 과정의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필요사항 논의	KAZA 사무국장
14:40~15:50	70'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5:50~16:00	10'	회의 정리 및 마무리 인사	기후부

□ 향후 계획

-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통해 허가요건 이행상황과 현장 필요사항 수시 점검